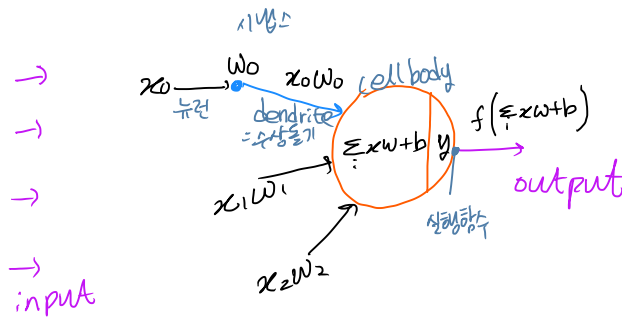


딥러닝의 시작

- 인류는 복잡한 일을 기계한테 시키고 싶어했다. 그래서 기계도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의 뇌를 연구하게 되었다.



- linear 한 모델의 AND 나 OR 은 구현할 수 있었지만 XOR 은 구현할 수 없었다.
- Minsky 교수는 누설 네트워크에는 hidden layer 가 존재한다 했고 구현할 수 없을거라 생각함
- 74년, 82년에 Paul werbos 가 Back propagation 이라는 방법을 고안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95년에 Hinton 이 재발견하여 살아나게 됨
-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라는 이론도 등장했는데 이는 그림을 한번에 읽어 들여 학습

하는 게 아니다 조금씩 읽어 학습하고 나중에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다. 인식률은 90% 정도!

-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1에와가 많으면 많을수록 back propagation 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!
- CI FAR 라는 단체가 10년간 후원해서 결국 2006년에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. 초기값을 적절하게 주면 딥한 네트워크에서도 학습이 된다는 것! 이후 Deep Learning 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다.